

**Nathaniel Barber 변호사, CDR에서 브렉시트 이후 금융감독원(FCA) 집행의 미래 논의**

2019 07 16

영국 법정변호사인 Nathaniel Barber 변호사는 상사분쟁해결(Commercial Dispute Resolution)과 인터뷰하면서 영국의 금융감독원(FCA)에서 발행한 2018-2019 보고서와 당 보고서가 규제 우선순위에 미치는 영향을 논했습니다. FCA의 보고서는 브렉시트에 따른 규제와 기구의 우선순위에 큰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책임범위를 넓히고 영국 정부와 다수의 합작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두절의 위험은 상존합니다. 금융서비스 규제에 정통한 영국 법정변호사로서 Nathaniel Barber 변호사는 10월 31일이 다가오면서 예상할 수 있는 전개를 논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브렉시트의 결과에 따라서는 규제당국과 각 회사가 브렉시트 이후 체제로 이행하고 FCA와 유럽연합 규제당국 양자의 기대치를 조정하면서 규제사건의 수가 다소 감소할 듯합니다.”

전체 기사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필요).